

##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전미경\* · 이은주\*<sup>1)</sup> · 유난숙\*\* · 왕석순\*\*\* · 최새은\*\*\*\*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 Effectivenes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un, Mikyung\* · Lee, Eun Joo\*<sup>1)</sup> · Yu, Nan Sook\*\* · Wang, Seok-Soon\*\*\* · Choi, Sa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at three secondary schools in Seoul, Chungcheong province,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with focus on the following topics respectively 'parent-child communication', 'understanding fatherhood', and 'preparation for parenting based on self-understanding'.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inventory and 97 data copies for pre- and post tests were used for analyses.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paired t-test and One way ANOVA using SPSS/PC 21.0 program. The results from mean comparison of pre- and post tests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necessity for parenting education and needs for including parenting program into regular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ncreased statistically, which means that parenting program must be implemented regularly to meet the demands of adolescents for parenting program. Second, the main reason for not having children was 'burden for rearing children', which means that enough child-care skill and information need to be included. Thir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tests regarding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became positive. Fourth, the 32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parenting education of 'understanding fatherhood' did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role. The 29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parenting education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ommunication. The 36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parenting education of 'preparation for parenting based on self-understanding'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This results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education for adolescents. Therefore, Home Economics subject must be selected to give the opportunity of parenting education to high school students.

---

1) 교신저자: Lee, Eun Joo, Dongguk University,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The Republic of Korea  
Tel: 010-2001-8877, Fax: 02-2260-8750, E-mail: ejrq94@nate.com

**Key words:** 예비부모교육(parenting education program), 프로그램 효과성(program effectiveness), 청소년(adolescen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근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Wang, 2009; 2014). 이러한 의, 식, 주의 기본적인 생활의 제공과 더불어 정서적인 사랑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부모의 역할, 즉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통합적인 역할은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길러지기 어려운 역량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Chung & Chung, 2016).

더구나 우리 사회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사례가 늘어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5)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 보호 건수가 2006년 5,202건에서 2014년 10,027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할 만큼 아동 학대와 관련한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게다가 자녀에게 행해지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은 향후 자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며(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1; 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 활동 위축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세대 간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아동관련 문제를 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숙한 부모됨과 긍정적인 부모역할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문제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숙한 부모됨을 학습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예비부모교육이란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며 자녀양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Kim, 2004). 부모됨의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첫 자녀의 출산을 위기 사건으로 인식하는 만큼(LeMasters, 1963), 부모가 이미 되었거나 또는 부모가 될 남·녀 모두에 대한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의 부모상을 포함한 이상적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부모됨의 인식과 함께 올바른 부모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개입은 더욱 효과적이다. 더구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기능 변화 및 사회 변화에 의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도움이나 적절한 부모됨의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은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해 대물림되는 아동 학대 현상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좋은 부모됨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예비부모교육으로서의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부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생 대상이거나 한부모 및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Cho, 2012). 부모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됨에 대한 명료한 개념화가 필요하며, 이는 청년기 이전에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으로는 Park(2009)과 Choi(2013) 등의 소수 연구에 불과하다.

한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실태를 알아본 연구(Kim, Choi, & Cho, 2012)에 의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이수과목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다루는 교과는 ‘기술·가정’이 유일하며, 전국의 271개 고등학교 중에서 88%는 1학년에서, 9%는 2학년에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에서는 ‘가정교과’를 통하여 부모됨과 부모역할을 청소년들에게 교육

시키는 공교육적 개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Wang, 2009). 그러나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가정교과가 기술교과와 한 개의 교과로 병합되면서 예비부모교육은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더욱이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로 운영되던 기술·가정교과를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선택교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일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가정 수업을 통해 배웠던 예비부모교육의 기회는 더욱 축소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가 종결교육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개입 장치가 상실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행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의 현실은 여러 선행연구(Chae et al, 2006; Choi, 2013; Wang, 2009)에서도 비판되어 왔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지육(智育) 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교육적 풍토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예비부모교육을 강화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에서 가정교과교육을 강화할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2016)에서 개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통합적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가정교과가 공교육 체계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증시켜 줄 중요한 논리 개발의 실증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는가?

넷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성역할,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의 출현 및 발달이 이루어지며, 인지발달 측면에서는 지적 발달이 현저하여 형식적 조작의 사고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생활에서 추론적 사고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치 체계는 자발적 동기에 기초한 이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점진적으로 독립심을 획득하게 된다(Choi, 2013).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때 부모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Kim et al., 2012).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부모관과 양육관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다면 부모가 된 이후에 실시되는 부모교육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아개념은 건강한 부모역할 수행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인이 되기 때문이다(Kim, 2004). 한편, Yoo와 Kim(2003)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보다 잘 키울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인간발달 단계별 심리적 특성을 배우는 것은 부모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등(2012)은 국가가 예비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국가인적자원인 다음 세대를 건정하고 역량있게 키워갈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적 지식과 정보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청소년기 예비

부모교육을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국내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Kim 등(201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성인이 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66.5%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고등학생 시기에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8.4%가 나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대상 예비부모 교육 실시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39.7%가 ‘학교 교과 수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재량수업 등 특별활동’이 29.1%, ‘전문기관’이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66.7%가 ‘학교 교과 수업’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다른 방식을 낮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전문 기관이나 지역센터를 19.2% 정도 꼽았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시기에 예비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대상 예비 부모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결과에서 예비 부모교육이 효과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은 적절히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Wang, 2009), 성숙한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가정교과 영역에 의한 보편적 학습의 기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수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한부모 및 시설 청소년에 한정된 형태가 많다.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Park(2009), Choi(2013), Chae et al(2006) 등의 소수 연구에 불과하다. Park(2009)은 고등학교 1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에서 2주일동안 ‘부모됨’ 단원을 실천적 추론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총 6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실행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 이해를 높였으며 태도, 임신, 피임, 출산에 대한 이해 영역이 가장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있는 지

평가한 결과,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인식 향상과 부모됨의 준비에 대한 인식 향상 면에서 실험집단은 수업 후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부모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oi(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3회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검증을 한 결과 중학생들의 가족, 결혼, 나, 성, 양육 영역의 지식과 태도 측면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실험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추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하락이 없었으므로, 그 프로그램 적용 효과가 지속됨을 입증하였다. 질적인 검증으로 측정된 프로그램 적용 대상 학생들의 피드백 내용의 변화로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Chae et al(2006)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eller의 ARCS 동기이론을 적용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인식과 부모됨의 준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Park, 2009), 가족, 결혼, 나, 성, 양육 영역의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프로그램 적용 효과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속됨이 입증되었다(Choi, 2013).

## 3. 국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국내와는 달리 국외에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찍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및 사회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역할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Bartz, 1980). 국외의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청소년의 혼전 임신 예방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Lee & Kim, 1998).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십대 청소년들의 낙태와 미혼모 증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십대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Family Life Education, Living For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이나 Tender Loving Care Teen

Parenting Program, Teen Parenting & Child Care Program, Prevention Initiative Program, Teen Net, Alternatives for Parenting Teen Program 등이 이러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라고 할 수 있다(Bae & Kang, 2008).

현재에는 십대 미혼모/부에 초점을 두었던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는 방향을 보인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한편, 문제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방법, 부모역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주의 부모됨과 영유아 교육 준비 프로그램(Preparing Future Parents and Early Education)이나 코네티컷의 SAVE와 같은 프로그램, 미시간 주의 ‘부모의 책임(R U Ready?) 프로그램 등이 그 실례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10대 부모의 실제, 부권(paternity) 확인과 법적 아버지, 결혼과 부모됨의 실제, 경제적·의료적 지원 등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양육방식, 자녀양육의 가치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함께 다룬다.

가정교과를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부모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국외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지역사회와 가족(Community and Family studies)’ 이라는 교과목에서 부모와 양육자의 유형을 이해하고 자녀의 삶의 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부모 역할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가족’ 교과목 내용 중 25%가 부모됨 관련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는 부모/양육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역할의 유형, 개인적·사회적 영향, 부모 및 양육자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 탐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ing and Paternity Awareness: P.A.P.A)은 중등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 중고생이 ‘부모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 부모의 실제’를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십대 아빠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아버지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성이 있다.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 부권의 이점, 자녀양육(비)과 관련한 법적 문제, 한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부모역할 수행에서의 보람, 건강한 관계의 기술, 가정폭력 예방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정’교과를 통해 청소년 대상의 보편적인 부모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정교과를 배운 남학생들의 경우 배우지 않은 남학생들에 비해 아버지가 된 이후에 부모 역할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Kurokawa, 2016).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6)의 일부를 실행하고 자기기입식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충남,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할당표집하였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대

Table 1. Descriptive of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N	%	구분		N	%
School level	Middle school	29	29.9	Gender	Boys	47	48.5
	High school	68	70.1		Girls	50	51.5
Siblings	Yes	89	91.8	Number of siblings	2	71	73.2
	No	8	8.2		3	18	18.6
					No response	8	8.2
Birth plan for child in the future	Yes	79	81.4	Number of children in the future	1	7	7.2
	No	17	17.5		2	61	62.9
	No response	1	1.0		3	11	11.3

(N = 97)

상자는 참여 학교의 여건에 맞춰서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00부이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총 9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은 고등학교 70.1%, 중학교 29.9%로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고 성별은 여학생 51.5%, 남학생 48.5%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학교급, 학년, 성별, 형제유무, 형제 수, 향후 자녀 출산 희망 여부, 출산 희망 자녀 수)과 조사대상자의 예비부모교육과 부모됨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예비부모교육 참여의 필요성,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과정 포함의 필요성), 부모됨에 대한 인식(자녀를 출산하는 이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역할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참여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은 일·가정 양립이 주요 내용임으로 성역할 태도를,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은 의사소통 방식을,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은 긍정적 자아 개념 측정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조사하였다. 성역할 태도 문항은 Kang(2000)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구성한 문항을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의사소통 방식 문항은 Kim(2014) 연구의 의사소통(대화형)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에서 개발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 범위를 살펴보면 예비부모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1~10범위이고 1에 가까울수록 인식이 낮고 10에 가까울수록 인식이 높다.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의 문항은 순위별로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외 예비부모교육의 정규교육과정 포함의 필요성,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성역할 태도 문항의 경우 5점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하지 않은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이고 자아존중감 문항은 5점에 가까울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 문항은 부모-자녀 상황을 제시하고 알맞은 대화 형태를 고르는 4점 likert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수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고 4에 가까울수록 거부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예시: 자녀가 약속한 시간보다 TV를 오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① “재미있는 것을 하나보지?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났구나.”② “하루에 보기로 한 시간이 지났다. 그만 보아.” ③ “이제 그만 해.” ④ “당장 끄지 않으면 다시는 못 보게 할 거야.”의 대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각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이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됨 인식은 빈도 분석하였고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성역할,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증과 교육 참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2. Items of questionnaire

Items	No of items	Chronbach's $\alpha$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9	.900
perception of gender role attitude	8	.856
perception of communication	15	.834
self-esteem	10	.879

Table 3. Contents for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Contents	School level (gender/location)	N
Understanding fatherhood	High school (Boys/Seoul)	32
Parent-child communicatio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Chungcheong province)	29
Preparation for parenting based on self-understanding	High school (Girls/Gwangju)	36

2016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가 개발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총 17차시인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아버지됨의 이해」, 「예비부모를 위한 성교육」, 「성숙한 부모」, 「성숙한 사랑」, 「배우자 선택과 결혼」, 「부모의 공동 부모역할」, 「세대통합과 건강한 가족 문화」, 「자녀의 발달단계와 부모역할」, 「기초 돌봄의 이해」, 「애착」, 「부모-자녀 놀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훈육」, 「자녀의 물리적 안전과 양육 환경」, 「자녀의 정서적 안전과 부모의 공감」, 「자녀존중과 아동의 인권」 가운데 현장 학교에서 요청한 프로그램 즉, 「아버지됨의 이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각 프로그램은 가정교과 담당 교사가 1차시 45분~50분 수업으로 1회 진행하였다. 세부 내용은 <Table 3>과 같다.

#### IV. 연구결과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성역할·의사소통·자이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성역할 태도와 자이존중감 인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여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부모됨에 대한 인식은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대응 t검증 결과값이 제시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Table 7>~<Table 9>와 같다.

Table 4. Perception of each content

(N=97)

Contents	Pre-test M(SD)	Post-test M(SD)	t	
예비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예비부모교육 참여 필요성 인식(범위: 1~10)	6.96 (1.891)	8.20 (2.363)	6.657***
	예비부모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 필요성 인식	3.28 (1.076)	3.77 (1.028)	5.824***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3.69 (.645)	3.99 (.711)	5.750***	
성역할 태도 인식	2.39 (.703)	2.39 (.956)	.030	
수용적 의사소통 인식	1.86 (.404)	1.30 (.346)	-6.583***	
자이존중감 인식	3.84 (.556)	3.96 (.632)	1.959	

\*\*\* p<.001

Table 5. Perception of necessity for parenting education

(N=97)

Participants	Pre-test M(SD)	Post-test M(SD)	t	F
전체 참여자(범위: 1~10)	6.96 (1.891)	8.20 (2.363)	6.657***	-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N=32)	6.94 (2.229)	8.25 <sup>ab</sup> (2.723)	3.508***	3.349*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N=29)	7.38 (2.178)	8.83 <sup>a</sup> (1.284)	4.187**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 참여자(N=36)	6.64 (1.854)	7.64 <sup>b</sup> (2.167)	3.920***	

\* $p < .05$ , \*\* $p < .01$ , \*\*\* $p < .001$   
Scheffé test: a>b>c

1.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비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부모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예비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범위:1~10)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전체 인식은 예비부모교육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높게 인식( $t=6.657, p<.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육에서 참여 후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예비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 $F=3.349, p<.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예비부모교육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정규 교육과정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t=5.824, p<.001$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교육이 가장 유의미한 차이( $t=5.578, p<.001$ )가 있었고 이어서 나에 대한 이해 교육도 인식( $t=3.230, p<.05$ )의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의 경우 사전 인식이 높아서 사후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 교육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예비부모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 $F=9.164, p<.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6>과 같다.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됨에 대한 인식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자녀를 출산하는 이

Table 6. Needs for including parenting program into regular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97)

Participants	Pre-test M(SD)	Post-test M(SD)	t	F
전체 참여자	3.28 (1.076)	3.77 (1.028)	5.824***	-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N=32)	3.41 (1.008)	4.13 <sup>a</sup> (1.012)	5.578***	9.164***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N=29)	3.72 (.922)	4.03 <sup>a</sup> (.778)	1.797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 참여자(N=36)	2.79 (.946)	3.21 <sup>b</sup> (1.149)	3.230*	

\* $p < .05$ , \*\*\* $p < .001$   
Scheffé test: a>b>c



Table 7. Reason for not having children

(N=19)

구분	1순위 (%)	2순위 (%)	3순위 (%)
자녀를 갖지 않은 이유 전체	①②④ (20.0)	① (53.3)	② (33.3)

①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②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③ 부부만의 시간에 방해되므로  
④ 출산 및 양육은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므로 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⑥ 기타

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부모 교육 참여 전후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우선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1순위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 및 양육은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므로’를, 2순위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를, 3순위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양육 부담감’과 ‘경제적 이유’에 대한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 내용은 <Table 7>과 같다.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에 대한 전체 인식 순위를 살펴보면 사전에는 1순위와 3순위 ‘부부 사랑의 결실이므로’, 2순위 ‘아이를 좋아해서’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를, 사후에는 1순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2순위와 3순위는 ‘부부 사랑의 결실이므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예비부모 교육 참여 후 자녀 출산 이유 1순위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각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교육은 사전·사후 1순위와 2순위는 변화가 없지만, 3순위가 ‘아이를 좋아해서’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로 변화

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과 이에 대한 이해 교육도 교육 참여 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에 대한 인식이 1순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8>과 같다.

자녀 출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사전 인식을 살펴보면 1순위는 ‘경제적 준비’, 2순위와 3순위는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로 사후엔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교육은 교육 참여 후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은 ‘좋은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이해 교육은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변화하였다. 세부 내용은 <Table 9>와 같다.

### 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 $t=5.750, p<.001$ )가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 참여 후 부모

Table 8. Reason for having children

Participants	Pre-test			Post-test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전체 참여자(N=80)	③ (30.0)	④⑦ (20.0)	③ (16.3)	⑦ (30.8)	③ (25.6)	③ (23.4)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N=30)	③ (43.3)	③ (23.3)	④ (23.3)	③ (34.4)	③ (29.0)	⑦ (25.8)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N=25)	④ (32.0)	④⑦ (24.0)	⑧ (24.0)	④⑦ (22.7)	③④ (27.3)	③ (27.3)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 참여자(N=25)	③ (32.0)	③④⑦ (24.0)	⑦ (20.0)	⑦ (36.0)	④ (24.0)	③ (29.2)

① 대를 잇기 위해서 ② 결혼 후 자녀 출산은 당연하므로 ③ 부부 사랑의 결실이므로 ④ 아이를 좋아해서  
⑤ 노후 대책 ⑥ 사회적 의무이므로 ⑦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⑧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⑨ 기타

Table 9. Perception of ‘what to prepare for child-birth’

Participants	Pre-test			Post-test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전체 참여자(N=97)	② (47.6)	③ (29.8)	③ (26.2)	② (37.3)	② (24.1)	③ (28.9)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N=32)	② (53.3)	③ (26.7)	⑥ (36.7)	② (31.0)	③ (20.7)	③ (44.8)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N=29)	② (34.5)	③ (34.5)	③ (31.0)	② (50.0)	③ (32.1)	⑥ (28.6)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 참여자(N=36)	② (56.0)	③ (28.0)	③ (36.0)	③ (34.6)	② (34.6)	③ (26.9)

① 신체적 건강 ② 경제적 준비 ③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 ④ 정서적 안정(자아 성찰)  
 ⑤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⑥ 좋은 부부 관계 ⑦ 부부 간 자녀 공동 양육에 대한 합의  
 ⑧ 기타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참여 후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한편,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을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Table 11>과 같이 살펴보면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t=2.738, p<.01$ )와 ‘나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t=2.470, p<.05$ )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 조사대상자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t=3.618, p<.001$ ), ‘나는 미래에 유능한 엄마(아빠)가 될 수 있다’( $t=3.576, p<.001$ ),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t=3.950, p<.001$ ), ‘나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t=2.975, p<.01$ ),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3.074, p<.01$ )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3>과 같이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 교육」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t=2.582, p<.05$ ),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

Table 10.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Participants	Pre-test M(SD)	Post-test M(SD)	t	F
전체 참여자(N=97)	3.69 (.645)	3.99 (.711)	5.750***	-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N=32)	3.90 (.529)	4.09 <sup>a</sup> (.640)	2.760**	2.575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N=29)	3.73 (.628)	4.14 <sup>a</sup> (.587)	3.770***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 참여자(N=36)	3.48 (.698)	3.78 <sup>a</sup> (.821)	3.427**	

\*\*  $p<.01$  \*\*\*  $p<.001$   
 Scheffé test: a>b>c

Table 11.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N=32)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3.97 (.740)	4.19 (.693)	2.034
나는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4.03 (.595)	4.09 (.641)	.571
나는 미래에 유능한 엄마(아빠)가 될 수 있다.	3.94 (.759)	4.06 (.801)	1.161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72 (.772)	4.00 (.842)	2.738**
나는 자녀를 효율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다.	4.00 (.672)	4.16 (.628)	1.222
나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66 (.827)	4.00 (.842)	2.470*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03 (.740)	4.03 (.782)	0.000
나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91 (.818)	4.16 (.677)	1.438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91 (.818)	4.16 (.677)	1.761

\* $p < .05$ , \*\* $p < .01$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t=3.862,  $p < .001$ ), '나는 자녀를 효율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다'(t=2.236,  $p < .05$ ), '나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t=2.707,  $p$

<.01),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t=2.786,  $p < .01$ ), '나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t=2.409,  $p < .05$ ), '나는 미래에 부

Table 12.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N=29)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3.64 (.911)	4.21 (.630)	3.618***
나는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3.93 (.663)	4.18 (.670)	1.760
나는 미래에 유능한 엄마(아빠)가 될 수 있다.	3.61 (.956)	4.25 (.585)	3.576***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32 (.905)	4.07 (.813)	3.950***
나는 자녀를 효율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다.	3.86 (.891)	3.89 (.875)	.205
나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82 (.905)	4.00 (.816)	1.044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11 (.875)	4.18 (.772)	.528
나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61 (.1.100)	4.29 (.659)	2.875**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68 (.905)	4.21 (.568)	3.074**

\*\* $p < .01$ , \*\*\* $p < .001$

Table 13. Perception of performing parents' roles

(N=36)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	3.28 (.944)	3.58 (.937)	2.582*
나는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3.78 (.866)	3.86 (.899)	.723
나는 미래에 유능한 엄마(아빠)가 될 수 있다.	3.64 (.990)	3.81 (.951)	1.528
나는 좋은 엄마(아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22 (.929)	3.81 (.856)	3.862***
나는 자녀를 효율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다.	3.58 (.806)	3.92 (.937)	2.236*
나는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44 (.773)	3.69 (.889)	2.707**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36 (.833)	3.75 (.906)	2.786**
나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44 (.877)	3.81 (.889)	2.409*
나는 미래에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58 (.874)	3.83 (.811)	2.049*

\* $p < .05$ , \*\* $p < .01$ , \*\*\* $p < .001$

모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t=2.409,  $p < .05$ )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4. 성역할,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가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역할,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성역할 인식과 자아존중감 인식은 사전 사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 후 수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유의미한 인식( $t = -6.583, p < .001$ )변화가 있었다. 세부 내용은 <Table 14>와 같다.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의 성역할 인식은 사전 사후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아내는 자기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내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아내는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세부 내용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4. Perception of gender role,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N=97)

Participants - Contents	Pre-test M(SD)	Post-test M(SD)	t
일-가정 양립 교육(아버지교육) 참여자 - 성역할 인식(N=32)	2.39 (.703)	2.39 (.956)	.030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 - 의사소통 인식(N=29)	1.86 (.404)	1.30 (.346)	-6.583***
자기이해 교육 참여자 - 자아존중감 인식(N=36)	3.84 (.556)	3.96 (.632)	1.959

\*\*\* $p < .001$

Table 15. Perception of gender role

(N=32)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자녀 양육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9 (1.174)	2.25 (1.459)	.656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다.	1.97 (1.177)	2.19 (1.908)	.606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91 (.963)	2.09 (1.201)	1.000
아내는 자기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41 (.946)	2.38 (1.185)	-.147
남편이 가정에 경제적 만족만 시켜준다면 남편의 일을 다 하는 것이다.	2.16 (1.019)	2.25 (1.078)	.551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3.06 (1.105)	2.69 (1.230)	-1.679
아내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아내는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2.94 (1.162)	2.72 (1.350)	-.980
아이를 건강하고 원만하게 잘 기르는 것이 여성이 사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2.59 (1.160)	2.59 (1.266)	0.000

Table 16. Perception of communication

(N=29)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형제자매(형, 누나, 오빠, 동생)가 한참 동안 싸우고 있다.	1.79 (1.264)	1.38 (.862)	1.509
자녀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는데 자녀가 너무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	1.83 (1.104)	1.10 (.409)	3.660***
집에 친척이 오셨는데 자녀가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한다.	2.86 (.756)	1.61 (.916)	5.789***
아빠(엄마)가 몹시 피곤하여 쉬고 싶은데 자녀는 옆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다.	1.72 (1.251)	1.41 (1.053)	1.180
아빠(엄마)가 몹시 피곤하여 쉬고 싶은데 자녀는 옆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다.	1.45 (.506)	1.38 (.561)	.626
자녀가 식탁에서 반찬 투정을 한다.	2.21 (1.082)	1.34 (.614)	3.911***
방안에 들어갔더니 방안이 지저분하여 장난감이 널려 있다.	1.83 (1.002)	1.31 (.660)	2.483*
날이 어둡해졌는데 자녀가 집에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계속 놀려고 한다.	2.00 (.598)	1.38 (.494)	4.938***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녀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못 들은 척 한다.	2.00 (1.089)	1.25 (.645)	3.813***
자녀가 벽에 낙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1.66 (.974)	1.28 (.591)	1.832
자녀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다.	1.52 (.738)	1.17 (.384)	2.576*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자녀는 겹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엄마는 옷을 입혀주려고 한다.	1.83 (.539)	1.31 (.541)	4.050***
자녀가 약속한 시간보다 TV를 오래 보고 있다.	1.76 (.830)	1.28 (.455)	2.738*
아빠(엄마)가 소중한 여기는 항아리를 자녀가 장난치다 깨뜨렸다.	1.28 (.841)	1.03 (.186)	1.758
역으로 친척을 전송하러 갔다가 그만 자녀를 잃어버렸다. 몇 바퀴나 돈 후 겨우 찾았다.	1.97 (.865)	1.28 (.455)	4.170***

\*p<.05,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의 의사소통 인식은 사후 인식에서 사전 인식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수용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16>과 같다.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 준비 교육』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t=2.049, p<.05$ ),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t=2.092, p<.05$ ),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t=2.140, p<.05$ )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17>과 같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둘째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성역할·의사소통·자아존중감 영역에서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절차는 한국가정교육학회가 개발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후 자기기입식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충남,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할당표집한 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충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 교육』을 주제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총 97부(여학생 51.5%, 남학생 48.5%)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 백분율, 대응 t검증, One way ANOVA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예비부모교육 운영보다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

Table 17. Perception of self-esteem

Items	Pre-test M(SD)	Post-test M(SD)	t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4.19 (.786)	4.06 (.754)	-1.711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3.64 (.833)	3.89 (.887)	2.049*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3.94 (.754)	4.08 (.806)	1.303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나갈 수 있다.	3.89 (.785)	3.94 (.791)	.572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4.25 (.692)	4.14 (.723)	-1.276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4.06 (.791)	4.03 (.845)	-.190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3.33 (.756)	3.67 (.926)	1.919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3.83 (.811)	4.06 (.791)	1.848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3.83 (.878)	4.06 (.674)	2.092*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3.50 (.941)	3.78 (.866)	2.140*

\* $p<.05$

(N=36)

응할 수 있는 학교급별 정기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 성별, 지도 교사의 역량, 수업 환경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양육 부담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에서 양육기술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가 교육 참여 전에는 ‘부부 사랑의 결실’, ‘아이를 좋아해서’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교육 참여 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부모교육 참여를 통해서 막연하고 모호한 자녀관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 출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인식은 사전 사후 모두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와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녀 양육 기술 정보와 더불어서 경제적 준비를 위한 금융교육 및 진로지도와 같은 경제교육을 같이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주제별로 살펴보면,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과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 교육」은 ‘올바른 양육 태도’가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은 ‘좋은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므로, 관련 교육 내용을 연계 진행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사전 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만큼 예비부모교육 참여를 통해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시된 예비부모교육의 모든 주제에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 후 양육 기술 습득, 최상의 양육 환경 제공 가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의사소통 교육과 나에 대한 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실시를 통해서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비부모교육

실시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들은 성역할의 변화가 없었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인식의 변화가 유의미하여 보다 수용적이 되었으며, 「자기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교육」 참여자들도 자아존중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 한계점, 제언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가족형태와 가족생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확립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시기부터 부모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교육에서 유일하게 예비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과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2009 개정과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기술·가정교과가 일반 선택 과목이고 비수능과목이다 보니 해가 갈수록 선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비부모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점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바, 학교 현장에서 기술·가정교과의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자신의 부모됨과 가족생활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은 예비부모교육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향상이나 가족생활교육의 일환이 되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청소년들은 양육부담감을 꼽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양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 양육과 돌봄 노동에서의 노동 양이나 노동 강도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등의 ‘아빠 어디가’ 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프로그램이 자녀양육의 실재를 보여주면서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감, 또 자녀양육과 돌봄에서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양육은 육체노동이자 감정노동이 계속되는

노동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양육의 고됨을 강조하는 것에서 ‘양육 부담’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특히 양육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팽배한 상황이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넷째, 부모됨은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어린 아이를 돌보아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부모됨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좋은 부모는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지하지 않는 자기관리, 가족이라는 폐쇄적 사적공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것은 또 건강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 이 연구는 비록 일회성의 단회기 프로그램이었고, 참여자가 적을 뿐 아니라 지역차가 있으며, 회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요소와 진행자에 차이가 있는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향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향후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 효과성의 영역과 정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청소년의 가족과 친구관계, 자기관리 등에 실질적 효과를 낳아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 지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Bae, E. S., & Kang, K. J. (2008).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73-190.

Bartz,, K. W. (1980). Parenting education for you. In M. J. Fine(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Burgess, K., Rubin, H. H., Cheah, C., & Nelson, L. (2001). Socially with drawn children: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Crozier & L. E. Alden (Eds.), *The self shyness and social anxiety: A handbook of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Wiley.

Chae, J. H., Park, M. J., Kim, S. G., Yu, N. S., Yu, M. S., & Kim, S. H. (2006). *Parenting education in the classroom*. Kyomunsa.

Cho, K. R. (2012). *A meta-analysis on t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Choi, C. M. (2013). *Development of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verification on juveniles curriculu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Chung, O. B., & Chung, S. H. (2016). *Education for prospective parents(2nd Ed.)*. Seoul: Hakjisa.

Kang, K. Y. (2000). *Perception of equity decision-making style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in dual-career couple : Focus on an office workers, managerial profession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E. S., Choi, Y. K., & Cho, H. J. (2012). Pre-parent education for high-school students and its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6(1), 1-19.

Kim, J. M. (2004). *Pre-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gram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Y. N. (2014). *Effect of parents' upbring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parent communication method on young children's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Kurokawa, K. (2016). Possibility of Family Life Education in Social Settings in Japan: Comparing Fathers with and without Home Economic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 Education. XXIII IFHE World Congress 2016.

Lee, J. Y., & Kim, K. H. (1988). Motivations for parenthood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sian Women*, 27, 103-115.

LeMaster, E. E. (1963). Parenthood as Crisis, in Marvin B. sussman (Eds.), *Source book in Marriage and Family*,



- 2<sup>nd</sup> ed., Boston: Houghton Mifflin.
- Park, S. G.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 program for the 'being parents' segment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focusing on practical inference instr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Wang, S. S. (2009). Analysis of family life education in Korean public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5(2), 249-274.
- Yoo, A. J., & Kim, Y. J. (2003). *Theory and practice of parenting education*. Seoul: Dongmunsa.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안)
-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6).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점검 결과 보도자료
- 왕석순(2014). **지금 교육이 할 일은 배려, 돌봄, 치유**. 매일경제신문, 2014년 6월 10일자 기고문.
- 한국가정과교육학회(2016). **청소년 대상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6-17(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766-01)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 충남,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자기 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 교육』을 주제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기기입식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97명의 설문지를 빈도 분석, 백분율, 대응표본 t검증,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예비부모교육 운영보다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급별 정기적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로 ‘양육 부담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예비부모교육에서 양육기술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사전 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만큼 예비부모교육 참여를 통해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됨의 이해 교육』 참여자들은 성역할의 변화가 없었지만,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인식의 변화가 유의미하였고, 『자기이해를 통한 부모됨의 준비교육』 참여자들도 자아존중감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된 바, 공교육에서 유일하게 예비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과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8월 18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2월 13일